



## [해외건설 법률플라자 2021] 제2회 태평양-해외건설협회 공동 웨비나

결과보고

2021. 9. 10

### □ 개요

- 행사명: [해외건설 법률 플라자 2021] 제2회, 태평양 - 해건협 공동 웨비나
- 일시/장소: 2021. 9.9(목) 16:00~17:40 / Zoom 화상회의
- 주최: 해외건설협회, 법무법인 태평양
- 주제: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환경 이슈: 현안과 쟁점
- 참석자: 국토부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  
해건협 김영태 부회장, 정창구 센터장 등  
국내건설 기업 등 약 200여 명

### □ 주요 내용

- 개회사 및 사회 (태평양, 김승현 변호사)
  - 세계적으로 환경문제 및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이 ESG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중재 및 상사중재 사례 속 환경이슈를 살펴보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본 웨비나를 준비했음.
- 축사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해외건설기업의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건설 법률 플라자 2021'을 준비했음. 특히 해외진출을 선도하고, 아시아 중재계에서 선구자인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두 번째 웨비나를 준비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림

- 세계적으로 ESG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환경 이슈: 현안과 쟁점이라는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음
- ESG Lab을 설립하여 환경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어온 태평양 변호사들의 발표로 해외건설 투자 및 상사 중재 사례를 통해 환경이슈의 현안과 쟁점을 살펴보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해보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람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에 담긴 기업지원 및 애로해소의 일환으로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법률 웨비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해외건설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세션1 투자중재 사례 속 환경 이슈 (방형식 변호사, 김세진 변호사)

- 투자중재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은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임
- ICSID는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제수단이며 투자유치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헤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음
- 최근의 ESG 트렌드가 부각되고 있지만 약 10년여 전부터 환경 분야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 왔으며, 프로젝트가 주는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중재 규칙에서 카운터 클레임을 허용하는지, 양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있는지, 환경과 관련된 의무(진출국의 환경법 등)가 있는지, 국제적인 법률이 적용되는지 등 환경 관련 의무 및 여러 부대상항(인허가

등)을 고려해야함

-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투자중재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가 높음. 투자자로서 ICSID를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해당 계약안에 투자협정에서 이루어지는 청구 권리 등을 미리 파악 후 계약하여, 만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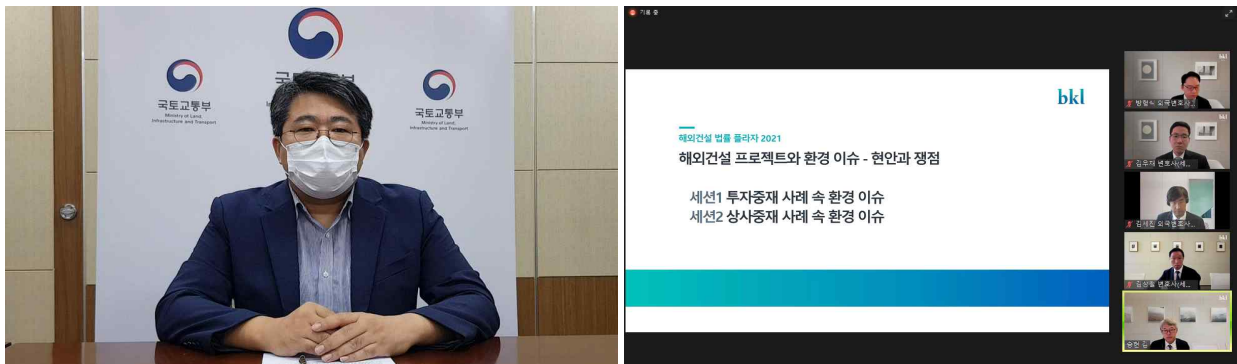
○ 세션2 상사중재 사례 속 환경 이슈 (김우재 변호사, 김상철 변호사)

- 상사 중재와 해외건설 분야에서 환경이슈가 어떤지 경향을 설명
- 소음, 진동, 오염, 주민소송 등 환경 문제는 언제나 이슈가 되고 있고, 환경 이슈 자체가 매개가 되는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따른 각국 법령 및 각종 국제협약이 증가하고 있음. 2018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1,500개 이상의 환경 규제 법령과 협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현재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관련 국제 협약 및 법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UN IPCC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한 조치를 취해야하므로 새로운 투자에 따른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상사 중재는 두 사적 파티를 중재하는 것으로 환경 관련 상사중재는 크게 3가지로 1)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환경적응 및 탄소 배출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 2) 전통적인 일반적 건설, 인프라, 에너지 계약 관련하여 환경 이슈가 매개가 되어 발생한 분쟁, 3) 사후적 중재합의를 통해 환경이슈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로 구분함
- 현재로서는 유형 2)가 가장 보편적이지만, 탄소정책 및 법규가 실행 되면 향후에는 유형 1), 3)의 중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해당 계약서 내에서 'Law'라고 볼 협약이나 법의 범위를 명확하게

합의하여 분쟁 소지를 줄여나가야 할 것임

- 상사중재는 환경이슈 분쟁을 해결하는데 최적화된 중재규칙 적용이 가능하고 복잡한 기술적 이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중재인을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함
- 계약상 요구사항(계약에 규정된 기술관련 요건, 적용 법규, 발주자 제공 환경 관련 정보 등), 프로젝트 외부 여건 등에서 환경이슈가 발생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발주자 제공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업타당성보고서의 정보가 미비한 경우 관련된 책임소재가 발생될 수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공기지연 및 비용 증가, 관계 당국의 환경 관련 인허가 요건 강화, 환경 민원, 주주 및 대주들의 환경 관련 요구(환경이슈가 있는 경우 주요 주주의 반대가 있는 사례) 등 프로젝트 외부 여건으로 인한 이슈 발생될 수 있음
- 상사중재에서는 중재인 선정이 중요하고, 적절한 전문가 증인의 선임 및 활용이 필요하며, 환경관련 중재의 실무적 내용을 고려해야함

## □ 세미나 사진



- 정책지원센터 -

끝.